

삼성 등과 '초협력'에 다 걸었다, AI위해 사명도 바꾼다



박정호 사장 기자간담회

초협력 제안에 삼성전자 긍정적 반응
지상파3사 합합친 '웨이브' 대표사례
자회사 증시 상장추진... '종합ICT사'
조작개편 가능성, 글로벌화와 협력강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로리스 더 프라임 립 레스토랑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SK텔레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국내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간 사업 경계를 허무는 '초협력'을 제안했다. SK텔레콤은 이를 위해 사명까지 바꾸는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8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 'CES 2020' 행사 기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초협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주요 기업간 AI 분야 협력 전격 제안한다"며 "국내에 잘

하는 플레이어들이 능력을 합치지 않으면 글로벌에 다 내주고 우리는 플레이어가 아닌 유저(이용자)가 될 판"이라고 말했다.

국내 ICT 기업의 초협력을 통해 글로벌의 구글, 애플, 아마존 등에 대항하겠다는 의지다.

박정호 사장은 이를 위해 전날 있던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와의 미팅에서도

AI 분야 초협력을 제안했고, 고 사장도 이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우선 협력 대상자로는 삼성전자가 유력하다. 박 사장은 구체적인 협력 케이스로 냉장고에 AI 스피커 '누구'를 탑재하는 방안을 거론기도 했다.

박 사장은 "삼성과 AI 초협력에 대해서는 시장에 접근하고 싶은 방식 등을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AI 관련해

서는 서비스 능력을 합치고 브랜드나 애플리케이션은 각자 가고 싶은 방향에 대한 자유도를 가지자. 특히, IP 등에 대해 지금부터 디자인을 짜보자"고 제안했다.

박 사장은 지난해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힘을 합쳐 출범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를 초협력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박 사장은 "초협력을 통해 웨이브라는 방패가 생기니 최근 부산에서 만난 넷플릭스의 대표인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 태도가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정호 사장은 올해 말부터 자회사 증시 상장(IPO)을 추진하는 한편 통신사를 넘어 '종합 ICT 기업'으로 변모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박 사장은 "MNO 매출을 포함한 통신 매출이 60%"라며 "매출의 40%가 뉴 ICT 사업에서 나오는 만큼 SK군의 기업 정체성에 걸맞는 사명 변경도 고민할 시점에 왔다. SK하이퍼커넥터와 같이 통신,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초협력을

강조한 식으로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올해는 주력인 MNO와 뉴 ICT(미디어, 보안, 커머스)를 양대 성장 엔진으로 삼는 '듀얼OS' 경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명을 변경하면서 조직개편 가능성도 언급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ADT캡스, 11번가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SK텔레콤에서 사명을 변경하면서 기업공개(IPO) 작업을 올해 말 시작해 2~3년안에 걸쳐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박 사장은 "상장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진 성과 보상 체제를 넘어서 준비하고 있다"며 "상황마다 다르지만 올해 말부터 IPO를 시작해 2~3년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회사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박 사장은 "글로벌 회사와 다른 차원의 협력을 해내야 한다"며 "지난해부터 시작했고 올해부터 제3자간 협력 분야가 많이 생기는 등 과실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CES 빛낸 국내 AI 기업들

솔트룩스 '시통합솔루션' 단독부스
롤루랩 스마트거울, 10초내 피부 분석
디플리 아기울음 분석... 상태안내 앱
에이모 시로 이동하는 물체 자동인식

인공지능(AI) 전문업체들이 지난 7일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0에서 챗봇,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뷰티, 육아, 자율주행 등 다양한 제품을 출품해 높은 기술력을 선보였다.

AI 분야에서 기존에는 AI 플랫폼, 챗봇 등에 주력하는 기업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다방면에 AI 기술을 접목하면서 획기적인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AI 대표기업인 솔트룩스는 'AI의 통합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단독부스를 개설해 관심을 모았다.

솔트룩스는 지식 기반 심층 대화 가능한 챗봇인 '톡봇', 추론 및 데이터 변환 도구를 제공하는 '지식 그래프', 기계학습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심층 질의응답 엔진인 '심층 QA' 등 주요 제품을 전시했다.

롤루랩·아이콘 에이아이 등 기업들은 AI 뷰티 스마트거울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삼성전자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C랩 출신인 롤루랩은 AI 피부 진단 스마트 거울 '루미니'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거울을 통해 얼굴 피부 상태를 스캐닝한 후 모공, 주름, 붉은 기, 유·수분, 트러블 등 항목을 10초 내 빠르게 분석해준다. AR 가이드로 피부 상태를 정밀히 표현하고, 피부 상태에 맞게 LED 마스크가 작동된다.

아이콘 에이아이(ICON.AI)도 아마존의 AI 음성 서비스인 '알렉사'가 탑재된 7인치 터치스크린을 갖춘 스마트 메이크업 미러를 선보였다. 스마트 스피커 기능을 탑재했으며, 피부 분석, A

R 메이크업, 링 LED 조명, 360도 스피커, 테이블 무드 램프, 카메라 등 기능을 갖췄다.

디플리는 아기 울음소리를 분석해 아기 상태를 알려주는 AI 기반 베이비시터 앱 'WAAH'를 개발하고, CES에서 처음 선보였다. 이 회사는 아기 울음소리 데이터 수집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와 연동 앱을 활용해 육아 일지 350개월 분량의 데이터를 구축했으며, 아이 울음소리를 탐지·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아기들의 실시간 상태를 알려준다.

AI 모델 경량화 기술을 보유한 노타는 온디바이스(On-device) 실시간 사물 및 얼굴 인식 솔루션을 선보였다.

노타는 이번 전시회에서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 디바이스 상으로 실시간 구동되는 사물 및 얼굴인식 솔루션 데모를 공개했다. 특히 사물인식 모델은 인텔의 오픈비노(OpenVINO) 기술 대비 높은 압축률과 약 2배 빠른 연산속도를 구현해 관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모라이·에이모 등이 시물레이션 기술, AI 물체 인식 기술 등을 선보였다.

카이스트의 자율주행차 연구진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모라이는 자율주행 AI 모델 개발 및 검증을 위한 고정밀 시물레이션 기술을 선보였다. 이 회사의 자율주행차 검증 기술은 정밀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현실과 동일한 가상의 도로 환경을 구축하고 실제 도로에서 발생하는 수만 가지 상황을 재현한다.

에이모는 AI로 현장에서 이동하는 물체를 자동 인식하는 기술, 자율주행 차량이 영상, 레이더, 라이더 센서를 분석하는 3D 큐비드 자동 생성 기술을 시연했다. 이 회사는 특히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에 입주한 7개 기업과 함께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CES 첫 참가... 두산의 미래상 공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트렌드 선도... 많은 고민과 실천 필요"
두산부스서 협동로봇과 DJ 퍼포먼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8일(현지시간) 경영진과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0 현장을 찾았다. 박 회장은 사우스 홀에 위치한 두산 부스를 시작으로, 센트럴·노스 홀을 오가며 국내외 기업들의 부스를 둘러봤다. 박 회장은 특히 AI, 드론, 5G, 협동로봇, IoT, 모빌리티 등 두산 사업과 연관된 기술을 중심으로 최신 트렌드를 꼼꼼히 살폈다.

CES 현장을 살펴본 박 회장은 경영진에게 "우리 사업 분야에서 최신기술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해야 한다"며 "올해 CES에서 우리가 제시한 미래 모습을 앞당기는 데 힘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했다.

두산은 이번 CES에 처음으로 공식 참가해, '우리의 기술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를 만든다'는 목표로 에너



박정원 두산그룹회장(가운데)과 박지원 그룹부회장(오른쪽)이 CES2020에서 두산그룹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두산그룹

지, 건설기계, 로봇, 드론 등 각 사업분야에서 두산이 지향하는 미래상을 선보였다.

두산 부스에서는 두산로보틱스의 협동로봇이 DJ와 함께 사인 스피닝 퍼포먼스를 펼치며 관람객을 맞았다. 사인 스피닝은 광고판을 회전시키면서 시선을 끄는 퍼포먼스형 광고로, 특히 북미 지역에서 인기가 높으며 신종 스포츠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 '협동로봇 바리스

타'는 관람객에게 드립커피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이번 CES에서 두산은 최고혁신상을 받은 수소연료전지 드론과 5G 실시간 통신을 기반으로 한 건설현장 종합관제 솔루션 '콘셉트 엑스(Concept-X)', 두산뱃캣 장비에 탑재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증강현실(AR) 작업 프로그램 등도 선보였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구서윤 기자 ysw@

구자은, 新기술 동향 파악 위해 CES 참관

(LS그룹 미래혁신단장)

LS그룹은 구자은 LS그룹 미래혁신단장 겸 LS엠트론 회장이 7~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을 참관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계열사 임직원 10여 명과 함께다.

구 회장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두산 등 한국 기업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슈나이더 일렉트릭 등의 전시관을 찾았다. 최신 기술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고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했다.

구 회장은 "디지털 시대에 업의 구분

이 불분명해지고 사업영역이 새롭게 재정의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새로운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를 위한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CES에서 글로벌 선진 기업들은 단순한 기술, 제품이 아닌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며 "우리 LS도 이러한 솔루션 관점의 시각으로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함께 동행한 임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아울러 구 회장은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 본사와 피보탈 랩스, 세



구자은 LS 미래혁신단장(오른쪽)이 CES 2020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LS그룹

일즈포스 등 기술력을 보유한 현지 회사들도 방문해 LS에 접목할 기술과 경영 기법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